

# 오피니언

## 데스크시각

박치경



'반값 등록금' 논쟁이 뜨겁지만 뾰족한 해법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대학생 자녀를 두었거나 곧 대학에 보낼 사람들은 날마다 신경을 곤두세워도 속 시원한 뉴스는 들려오지 않는다.

반값 등록금 논의의 시작단계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그러나 정부가 등록금 절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든지, 다른 곳의 예산을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대학생이 없는 가구를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따를 것이고, 반값 등록금 때문에 혜택이 줄어들어 사람들이 반대 촛불시위를 벌일지도 모를 일이다.

### 반값등록금 출발점은 대학

이처럼 등록금문제가 시급한 국가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정작 문제해결의 핵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대학의 태도는 실망스

럽기만 하다. 논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사립대 총장들은 당장 등록금을 10%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 좋은 대학, 나쁜 대학, 이상한 대학

대학의 반응이 시큰둥하자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대적인 감사와 지원대 상 선별로 '손보기'에 나서자 대학들이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다. 우선 국립인 서울대가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앞으로 5년간 학부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4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려대는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학비를 감면해주는 장학금 제도를 그

대로 유지하면서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 장학금 전체 예산을 총 65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반값등록금이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성의'는 보인 것으로 간주한다. 왜 더 빨리 나서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도 이 정도면 '좋은 대학'이 되려는 노력으로 봐줄 수 있다.

서민들의 등록금 수난사는 대학의 교육철학과도 직결된다. '인재양성'이라는 대학의 목표는 오래전 장식용 현판이 된 게 현실이다. 이런 대학 입장에서 학생은 1년에 두 번씩 수백만 원의 목돈을

제공하는 중요 수입원으로 취급될 뿐이다.

안식년이라는 미명 하에 '태평 세월'을 보내는 일부 교수도 있다. 연구와 수업을 게을리하며 대우만 받는 대학 교직원들을 바라보는 학부모의 심정은 "우리가 왜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나"라는 반감이 앞선다. 수천억씩 쌓아놓은 적립금을 풀어 학생과 학부모의 짐을 가볍게 해주자고 해도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만

한다.

대학 운영비로 총장 집 파출부 월급을 주고, 직원은 관리비를 부풀려 예산을 빼먹은 대학까지 나왔다. 장학금을 세치기 해 밥 사먹은 교수도 적발됐다. 모두 학부모가 뼈빠지게 일해서 납부한 등록금과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이었다. '나쁜 대학'의 전형이다.

### 구조조정에 성패 달려

'이상한 대학'도 있다. 학생모집이 어려워 입시철마다 교수들은 할당된 신입생 모시러 다니느라 신발이 닳는다. 공여지책으로 외국인 학생을 데려와 숫자를 맞추는 경우도 있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문벌이 맛에 강의실보다 아르바이트 업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그레도 받을 정부지원금은 다 받는다. 무슨 무슨 선도대학으로 선정돼 수십억씩 세금이 배정된다.

교육당국이 뒤늦게 대대적인 대학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지원대상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잡초에 필요한 것은 제초제이지 영양제가 아니다. '나쁜 대학'과 '이상한 대학'을 도태시키는 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 시설

### 전남 지역 고교 대규모 통폐합 신중해야

전남도교육청이 엿그제 도내 고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현재 163개교를 오는 2014년까지 80개교로 절반 이상을 줄인다는 것이다. 또 교육청은 우선 내년부터 63개 전문계고 가운데 12~13곳을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군 지역은 1~2개 거점고교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고교 구조조정 이유가 고교 수가 학생 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고 신입생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속출해 예산 낭비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도내 전문계고의 70%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그 중의 90%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도내 고교 신입생 지원율은 지난 4년 연속 미달사태를 빚었다. 어떤 식으로든 농어촌지역 고교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인 것이다.

우리는 도내 고교를 일부 통폐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

만, 지역 특히 농어촌의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수치를 근거로 한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서 농어촌이 더욱 황량해지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 농촌 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육투자가 부족한 게 원인이다. 통폐합에 앞서 도내 고교를 활성화하는 방법부터 찾는 게 순서일 것이다.

### 상상을 초월한 대학사회의 치졸한 비리

학교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장학금을 횡령한 광주여대 총장 부부와 교직원, 그리고 조선이공대 교수 등 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광주여대 관련자 9명은 학교 돈으로 파출부 월급까지 지급하고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통해 마치 '눈 먼 돈'처럼 흥청망청 썼다는 것이다. 이 돈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광주여대 총장 부부는 지성인 집단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치졸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상상을 초월한다. 이 부부는 집안 일을 돕는 파출부를 고용하면서 용역업체 직원으로 위장 취업을 시킨 뒤 학교에서 지급한 인건비의 절반만 주고 나머지 5400여만 원은 따로 챙겨 사용했다고 한다.

이 대학 교직원 오모씨는 외부에서 임대한 주차장 대수를 부풀려 1년간 학교 돈 2400만 원을 유용하고, 교직원 일부는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3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이공대 교수 김모씨와 조교는 지원한 장학금 13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만 학생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유혹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한다. 후안무치(厚顔無恥)가 따로 없는 것이다.

대학사회의 만연된 비리는 무엇보다도덕 불감증에 그 원인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조차 터부시 되는 이런 치졸한 사건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벌여 총장과 관련 교수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학교에 대한 행정적 제재도 가해야 한다. 사법 당국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업을 중단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분노마저 치미는 일이다.

## 無等鼓

지난해 말 미국에서 열린 미술대회에서는 소림사의 고수가 미국의 해병대원에게 참패를 당한 것이 화제가 됐다. 당시 중국 현지 언론이 전한 바에 따르면, 소림사 무술승려인 이룡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격투기시합에서 미국 해병대 출신 격투기 선수인 아드리엔 그로티에게 2라운드 만에 KO패를 당했다.

이룡은 각종 미술대회에 출전, 17연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합을 관전한 중국인들은 수척스럽다며 일제히 이룡을 비난하고 나서고, 소림사 측은 이룡이 정식 승려가 아니라고 발을 뺐으며, 이룡도 시합 직후 고항으로 돌아가 침묵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무협지가 부채질을 했다고는 하지만, 한 번 칼집에 달이 배어지는 신비의 검술 그리고 한 번 손짓에 상대를 거꾸러뜨리는 환상적인 장풍 등에 막연한 동경심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소림사 승려의 참패소식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물론, 고수가 되기 위해선 뼈를 깎는 수

련과 희생이 요구되는 무술계에서 승패는 이른바 '병가(兵家)의 상사(常事)'겠지만, 당시의 시합은 무조건 외국의 것을 숭상하고 우리 것을 업신여기는 '문화 사대주의(事大主義)'가 얼마나 근거 없고 우순은 것인가를 잠시나마 되돌아보게 하는 값진 이벤트였다.

지리적인 중요성으로 인해 외세의 침입이 많았던 우리나라에선 정치,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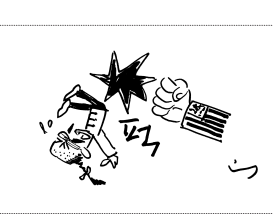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외국 강대국의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동경·숭상하는 문화 사대주의가 득세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외국 명품 짝퍽마져 인기를 끄는 것은 '모두가 펌프'라고 한다면, 비록 가짜일망정 '맛있고 값싸'는 심리가 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영된, 문화사대주의의 우월한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문화 사대주의는 본질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결여'에서 비롯된다. 세계의 문화수도 프랑스 파리에 있지 않다면, 'K팝' 열풍이 우리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홍행기 정경부처장redplane@

### 문화 사대주의



## 은펜칼럼



박홍근

건축가 故 김수근(金壽根, 1931~1986)이 타계한 지 올해로 25년이 흘렀다. 그는 대한민국의 낡은 세계적 건축사(建築士)이자, 교육자이며, 잡지 발행인이기도 했고 예술가들의 후원자였다.

김중업(金重業, 1922~1988)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 건축 1세대로 평가받으며, 한국건축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다방면에 걸친 한국문화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1977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 후원자인 로렌초 데 메디치(1449~1492, Lorenzo de' Medici: 피렌체의 권력자이며 르네상스의 산파역할을 한 인물)로 비유되어 '한국

### 광주, '김수근 홀'을 만들자

의 로렌초 메디치'라 칭송받았다.

한국건축과 예술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 김수근. 그는 70년대 우리나라 전통건축에 대한 고민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가장 한국적인 건축재료는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그에 대한 해답으로 붉은벽돌, 벽돌을 가장 인간적이고 한국적인 건축재료로 본다. 그 시기의 작품들로 공간사육(1977)과 서울 대학로의 여러 건축물, 경동교회(1980)와 불광동 성당(1981) 등이 있다.

옛 전남도체육회관(1981, 현 빛고을 시민문화관 별관)도 이 시기의 작품으로 벽돌을 주 외장재로 사용하였다. 체육회관이라는 기능을 수용하면서 주변 양반과 자연지형, 레벌차이를 절묘하게 극복하여 자연과 주변과의 조화를 잘 이룬 작품이다.

이런 소중한 건물이 헐릴 위기에 서 일부 건축사와 담당공무원의 노력에 의해 보존될 수 있게 되었고, 리모델링과 유지관리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30년의 한 세대를 지탱하고 문화의 시대인 또 다른 한 세대를 기

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장소와 공간의 쓰임은 가장 '김수근'이라는 이름과 건물의 용도에 걸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 우리가 그 가치를 몰랐을 때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그 건물의 가치를 잘 인식하여 사용과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때다.

현재의 사용계획은 식당(국밥집), 노인관련시설, 국악 및 임방울진흥회 관련시설, 광주문화재단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란 다. 초기의 입주계획상 어쩔 수 없다지만 지금이라도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

첫째, 가장 '김수근 홀' 또는 '김수근 문화예술관'으로 명명하여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공간으로 사용하자.

김수근이 '한국의 로렌초 메디치'라 칭송받았던 것처럼 이런 장소를 통해 광주에 많은 문화·예술 후원자가 나오게 하고, 시민들은 좋은 공간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 기고



최경주

최근 유럽을 강타한 변종 대장균 집단의 오염원으로 스페인산 유기농 오이가 지목되면서 유기농산물이 병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오인돼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변종 대장균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독일에서도 스페인산 유기농 오이를 비롯한 토마토, 양배추 등 샐러드용 채소에 이르기까지 오염원으로 거론됐지만 문제의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결국,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만 키워 모든 피해는 유기농산물 생산자에게 돌아갔다.

스페인 과일채소생산 수출연맹은 "거의 전 유럽에서 모든 채소와 과일이 도미노 영향을 받고 있다. 매일 2억 유로(약 31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보건당국의 선부른 발표로 스페인 농가 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이다.

국내 일부 언론은 물론 농업관련 신문도 문제의 집환이 마치 유기농산물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보도해 국내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들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

### 유기농가 피해 부른 '슈퍼박테리아 소동'

황이다.

국내 유기농산물의 53%를 생산하고 있는 전남에서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때 오염원 의심 받은 가축분을 사용하지 않고 헤어리베타나 호밀 등 녹비용 작물을 사용해 화학비료를 대체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기농 자재도 등록 단계에서부터 대장균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사전 조사가 실시돼 유기농산물에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번 사건으로 국가간에 식중독균 오염원을 둘러싼 의심과 외교적 분쟁,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급증, 유기농산물 생산자들의 천문학적 피해 등이 발생하고

### 한약재료상·한의원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해야

중국산 농산물 때문에 농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농작물로 바꾸는 농민들이 상당수다. 인삼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동안 백삼을 재배해 생계를 꾸려왔는데, 최근에는 중국산 백삼 때문에 너무 힘들다.

몇 년 전만 해도 국내산 백삼은 4년근 곡삼 50원(300g) 기준으로 3만5000원 정도의 가격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2만원~2만3000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걱정이다.

이 같은 이유는 싸구려 중국산 백삼이 마구 들어와 우리나라 한약재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산 백삼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백삼은 1kg당 7달러에 수입돼 28%의 관세를 부과하고, 제반 수수료를 더해도 300g당 8000~9000원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1만8000원~2만원이면 납품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해에만 수입된 백삼이 60여에 이한다고 한다. 보파리상과 밀수에 의해 들어와 유통되는 물량까지 더하면 그 이상이다.

더 큰 문제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는 점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같이 한약을 파는 약재료상과 한의원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으면 한다.

▲이정하·나주시 대기동

### '짝퉁 복분자주' 시중 유통 악덕업자 없애자

우리 전라도 지역은 고창을 비롯한 전남·북 농촌에서 재배한 복분자를 이용해 생산한 복분자주가 유명하다. 그런데 일부 악덕업자들이 짝퉁 복분자 탁주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다고 한다.

복분자는 남성들의 양기를 북돋아 주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술로써도 맛이 좋다.

그런데 복분자 탁주가 활개치면서 재배농가와 복분자 가공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있다.

결국 신뢰의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배추파동에서 보듯이 농업이 무너지면 소비자들이 모든 비용을 치르게 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유기농산물의 안전성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농업이 파산하는 사태는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 또 피해를 입고 있는 유기농가의 한숨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유기농업인들이 국민의 건강과 더 나아가 우리의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유기농산물 소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 바란다.

유기농부들이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라면 이들 영웅들이 생산한 유기농산물을 자녀들에게 먹여주는 엄마, 소비자들이 지구 구하는 또 다른 진정한 영웅들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 金鐘日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  |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가)11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      |  |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 광고문의 062-227-9600           |  | 경명지원국 2200-515                    |  |
|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  | 문화생활부 2200-661                    |  |
| 편집부 2200-649                |  | 여론재무부 2200-621                    |  |
| 정경부 2200-612                |  | 체육팀 2200-697                      |  |
| <대표 FAX 222-4918>           |  | 사진부 2200-693                      |  |
| 사회부 2200-616                |  | 조사부 2200-571                      |  |
| <대표 FAX 222-4267>           |  | 전산부 2200-685                      |  |
|                             |  | 문화홍보국 2200-541                    |  |
|                             |  | <F A X 222-8005> <F A X 222-0195> |  |
|                             |  | 광고이케팅국 227-9600                   |  |
|                             |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                             |  | <F A X 227-9500> <F A X 227-9500> |  |
|                             |  | 다자민 2200-536                      |  |
|                             |  | 서울지사 02-773-9331                  |  |
|                             |  | 기획사업국 2200-555                    |  |
|                             |  | <F A X 02-773-933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